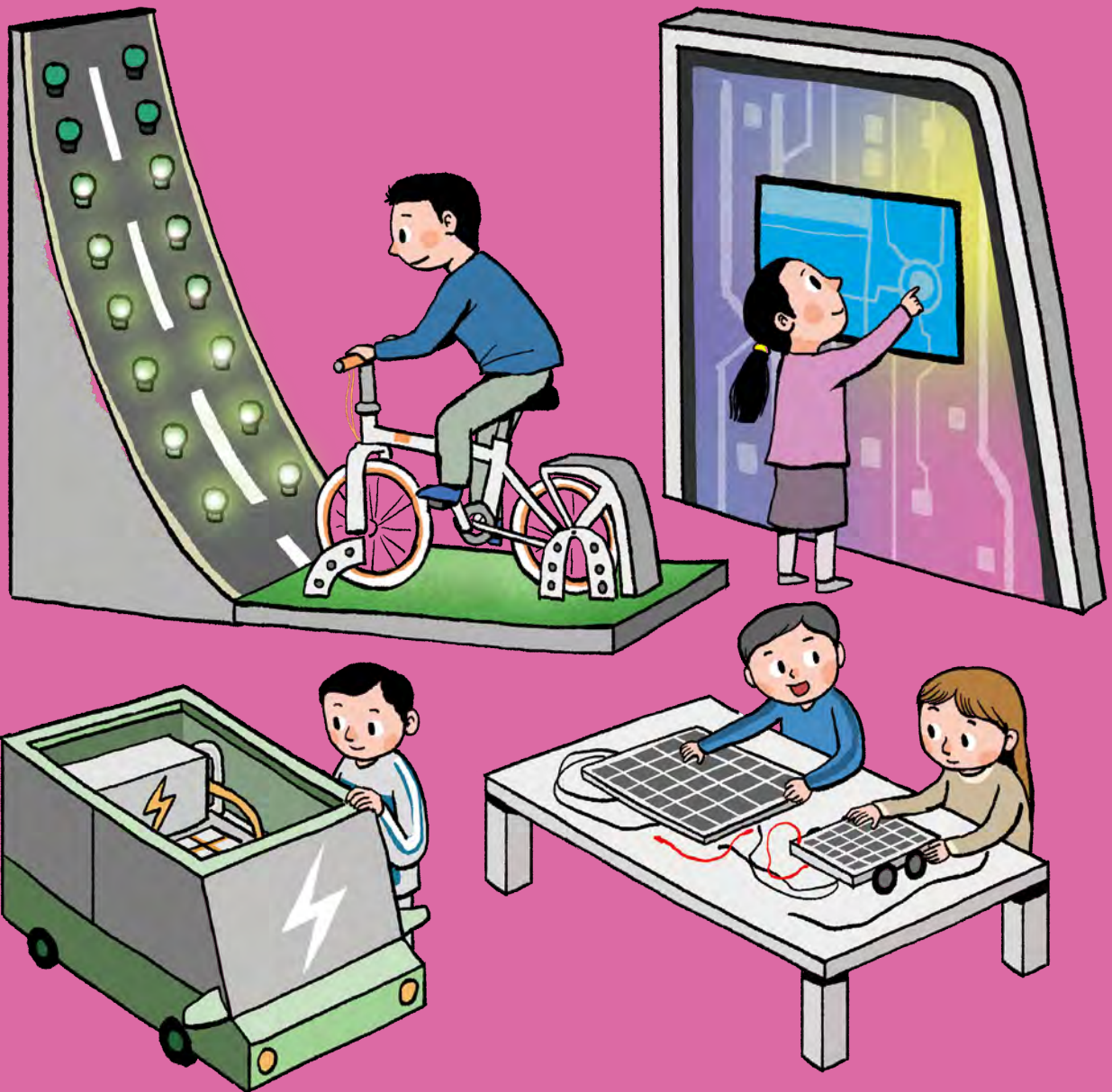


20

미래의 에너지 현장으로!

에너지 현장학습





미래의 에너지 현장으로!

에너지 현장학습



미래의 에너지, 현장에서 체험한다!

지금까지 에너지의 다양한 모습과 생각할 거리를 살펴봤습니다. 에너지를 일상에서 늘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에너지 안보나 탄소중립이니 하는 이야기는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 좁게 좁히더라도 한 지역의 경제가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이슈라서 그럴텐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결코 혼자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에너지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알 수 있지요.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에너지, 전국 곳곳의 전시관에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국 곳곳에는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에너지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까지, 한국전력공사 홍보관과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나주 한국전력공사 홍보관

운영시간 : 10:00 ~ 17:00

휴무 : 토, 일요일, 법정 공휴일

관람료 : 무료

오시는길 :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한전 본사 파빌리온 홍보관



부산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운영시간 : 09:00 ~ 18:00

휴무 : 월요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1월 1일

관람료 :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주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10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인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지요. 발전소라고 하면 일상과는 한참 동떨어진, 거대한 산업시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을 친숙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요. 다양한 체험활동과 친절한 설명이 자리잡은 전시관에서 전기의 모든 것을 한눈에 이해해보세요.

전라남도 나주에 자리잡은 한남전력공사 홍보관은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운영하는 홍보관답게 전기를 만들고, 소비지까지 보내서 사용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송전, 배전, 전력

판매와 수요관리까지 다른 전시관에서 보기 힘든 정보들이 가득하지요. 아무래도 기업의 홍보관이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송배전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관으로서는 독보적이니 한번쯤 방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전북 부안의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도 좋은 선택입니다. 미래의 에너지 환경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텐데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는 VR이나 AR과 같은 각종 첨단 기술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지요.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한다는 테마로 관람객이 직접 청정에너지를 모으는 참신한 활동도 즐겨볼 수 있어요!

에너지 자립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 원자력이 궁금하다면 고리에너지팜과 대전 원자력안전체험관으로!



한수원 고리 에너지팜

운영시간 : 09:00~17:00
 휴무 : 매주 월요일, 설날, 신정, 추석연휴
 관람료 : 무료
 주소 :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80



대전 원자력 안전체험관

운영시간 : 10:00~12:00, 14:00~16:00
 휴무 : 토, 일요일, 법정 공휴일
 관람료 : 무료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최근 원자력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안전성 문제로 원전 프로젝트 상당수가 중단되거나 취소됐지만, 에너지 안보와 자립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번에 많은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의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에는 에너지의 소중함과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고리에너지팜이 있습니다. 고리1호기 원전은 수명을 마치고 해체에 들어갔는데, 원전 해체 과정과 함께 원전 해체에 따른 일자리도 알아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동해안을 조망하는 자리에 있어서 경치도 무척 좋습니다.

한편 원자력에 대해서는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원전 안전이 걱정된다면 대전의 한국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원자력안전체험관도 추천할만합니다. 원자력의 기초 지식은 물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지키는 각종 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와 결합해서 기발한 방식으로 원자력 안전을 체험할 수 있어서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원자력 안전을 배울 수 있지요.

현명한 에너지 생활을 배우는 장, 에너지드림센터와 CFI에너지미래관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운영시간 : 9:30~17:30

휴무 : 명절당일, 월요일,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개관기념일(12월 12일)

관람료 : 무료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14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운영시간 : 10:00~17:00

휴무 : 토요일, 공휴일

관람료 : 무료

주소 :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 해안로 712-3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활은 '소비'로 완성되지요. 에너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일상에서 에너지를 현명하게 아껴서 사용하면 에너지를 덜 만들어도 되니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 자리잡은 ‘에너지드림센터’에서는 어떤 건물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지, 미래의 건물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과거 인근 하늘공원에 매립된 쓰레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에너지드림센터만의 장점이예요.

제주도에도 에너지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는 ‘탄소중립섬’을 목표로 섬 전체의 에너지원을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교체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는 ‘CFI에너지미래관’을 세워서 에너지 자립을 홍보하고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원부터 이를 관리하는 스마트그리드와 제주도에 등지를 튼 여러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까지, 미래의 에너지 환경을 알기 쉽게 소개했답니다. 제주시와 섭지코시 사이의 해안에 있으니 제주를 여행길에 들르기도 좋은 위치에 있지요.

연관콘텐츠



[영상] 탄소제로 라이프 스타일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515486118>



[카드뉴스] 올여름, 가족과 함께 에너지 여행을 떠나볼까요?
<https://blog.naver.com/energyinfoplaza/222766130945>



미래의 에너지 현장으로!

에너지 현장학습

에너지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하고 에너지의 필요성을 이해하려면, 꼭 멀리 있는 큰 전시관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에너지 체험관, 과학공원, 과학관과 같은 곳에서 에너지의 소중함과 원리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지요. 여러분이 품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위의 체험관이나 과학관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에너지에 대해 무엇이 궁금한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문한 체험관이나 전시관에서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었나요?

	궁금한 점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얻은 해답을 적어보세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이 궁금한가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무엇이 궁금한가요?		

에너지를 아껴 쓰는 데
무엇이 궁금한가요?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무엇이 궁금한가요?



여러분이 해답을 얻을 수 없던 질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전시관이나 체험관이 더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체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주위에 필요한 체험관이나
전시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미래의 에너지 현장으로!

에너지 현장학습

에너지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대상을 다루기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인프라라는 특성상 너무 거대해서 학생의 일상과는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학이나 기술에 관심이 적은 학생이라면 에너지 관련 이슈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체험'은 매우 유용한 학습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에너지 체험,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

방식과 공간은 다양하지만 체험 목적은 하나! 바로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

앞서도 살펴보았듯 여러 에너지원은 저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자연과 산업, 사회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조합하는 것이 에너지믹스인 만큼, 에너지원 자체에 대해 선형적인 가치판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균형잡힌 관점에서 에너지 교육을 진행하려면 각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은 철저하게 특징과 원리 중심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에너지원에 대해 말로 전달하다 보면 언어의 특성상 일정 부분 설명하는 사람의 가치판단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충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에너지원을 '나쁜 에너지', '좋은 에너지'로 단정짓게 될 가능성도 있지요.

에너지 교육에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 언어의 이러한 특성 때문입니다. 체험을 통한 교육의 목적은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사전 정의된 체계에 따라 학습자가 직접 체득하는 방식이므로 선입견을 배제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단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체험이 수반되어야 에너지믹스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

막연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체험을 통해 직관적이고 흥미롭게 이해

한편으로 체험은 에너지 효율이나 절약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교육에는 필연적으로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한다'는 언급이 들어갑니다. 교육자가 부주의할 경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에너지 절약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도 있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할 경우 학습자 입장에서는 반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추상적인 목적을 위해 불편을 강요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에너지 효율 관련 교육은 '지금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더 적은 에너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점은 언어적인 방법만으로는 자칫 불편을 감수하는 데 대한 정당성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즉, '결국은 에너지 아끼라는 말 아닌가요?'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논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더 적은 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대로 누린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는 생활 습관을 바꾸든,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얻는 효용을 직접 체감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험'의 영역이므로 설명과 같은 간접 경험보다는 체험이나 게임 등을 통한 직접적 경험이 훨씬 효과가 큼니다. 근래 설립되거나 리뉴얼을 마친 체험관의 경우 VR이나 AR, 게임 형태의 체험 등을 통해 학습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게 배려합니다.



MEMO

.....

.....

.....

.....

.....

.....

.....

.....

.....

.....

.....

Lined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